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2022년 3월 29일 | 조사역(G3) 김혜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001 천 km ² 	인구 1억 290만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GDP 3,963억 달러 (2021 ^e) 	1인당GDP 3,852달러 (2021 ^e) 	통화단위 Egyptian Pound 	환율(U\$기준) 15.65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약 1억 2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대국으로, 리비아(동쪽)와 수단(남쪽) 및 가자지구, 이스라엘(서쪽)과 지중해(북쪽)에 접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
- 이집트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정부의 선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 견조한 소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등에 힘입어 2020년 3.6%, 2021년 3.3%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2014년 엘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정세가 안정화되었으며, 2020년 상원(7월), 하원(12월) 선거에서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2030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자원 수출, 관광수입, 수에즈 운하 통관 수입 등 이집트의 주요 외화수입원들이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변동성이 크나, 아프리카 내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에너지 부문의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5. 4. 13 수교 (북한과는 1963. 8. 24)

주요협정 항공협정('79), 이종과세방지협정('92), 무역협정('96),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96), 사증면제협정('96), 원자력평화협정('01), 장관급공동위원회 설립협정('12),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1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573,207	1,215,173	1,681,640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입	282,013	345,511	646,127	천연가스, 석유제품, 천연농산물

해외직접투자 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1건, 457,226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제성장률	4.1	5.3	5.6	3.6	3.3
소비자물가상승률	23.5	20.9	13.9	5.7	4.5
재정수지/GDP	-10.4	-9.4	-8.0	-7.9	-7.3

자료: IMF, EIU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취임 후 4~5%대의 견조한 경제성장 시현

- 이집트 경제는 반정부 시위(2011년), 쿠데타(2013년)로 촉발되었던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이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취임 후 상당 부분 해소되고 FDI, 해외원조 등이 증가하여 2015년부터 4%대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8~19년에는 안보 강화를 통한 관광업 회복,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건설업 호황 등으로 5%대의 성장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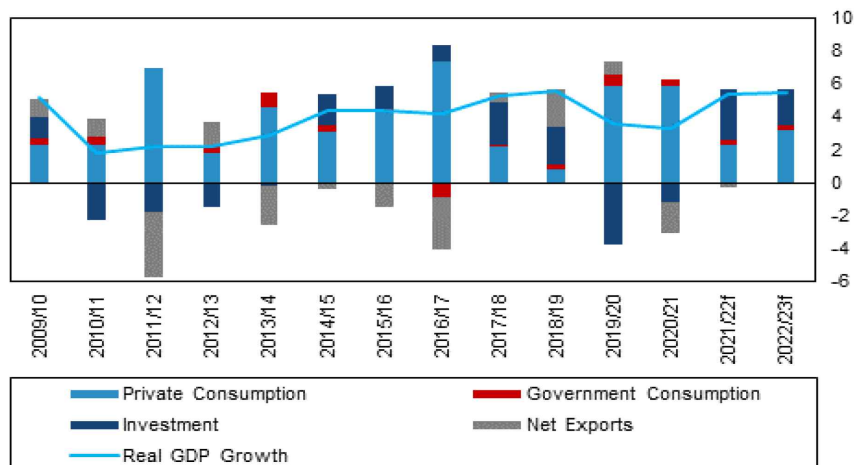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성장세는 둔화

- 2020년 이집트 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보건·사회보장 지출, 코로나19 피해업종 자금 지원, 코로나 대책 기금 조성)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타격을 극복하고 3.6%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도 민간소비 회복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3.3%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Fitch Solutions는 이집트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2019/20회계연도(2019.7.1.~2020.6.30.) 7.2%, 2020/21년 2.7%로 추정

- 이집트 정부는 금리 인하, 일부 피해업종 앞 긴급자금 지원, 일부 계절노동자 앞 긴급 생계비 지원, 세금 감면·면제, 공과금·요금 인하, 대출상환기간 유예(6개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4~6월 국가봉쇄령을 단행한 후 상대적으로 빠른 7월 초에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재개방하여 관광업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그림 1] 이집트의 연도별 GDP 구성요소



자료: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2022년에는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광 부문 회복 등으로 5%대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 2022년에는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관광 부문의 회복, 인구 증가, 민간소비 회복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5%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Vision 2030'을 시행 중으로, 수에즈 운하 확장, 신행정수도 이전, 북서부 지중해 연안 개발사업,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업 활성화와 투자 증가가 기대됨.
- 공무원 최저임금 20% 인상 및 민간부문 최저임금제 시행과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송금 증가의 영향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기관들의 이집트 2022~23년 이집트 경제성장률 전망¹⁾

단위: %

연도	IMF	세계은행	EIU	AfDB	Fitch Solutions	IHS Markit
2022년	5.6	5.5	5.3	4.7	5.4	5.3
2023년	5.6	5.5	5.7	n/a	5.5	5.9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는 식료품 가격 및 환율의 급등으로 강한 상승 압박에 직면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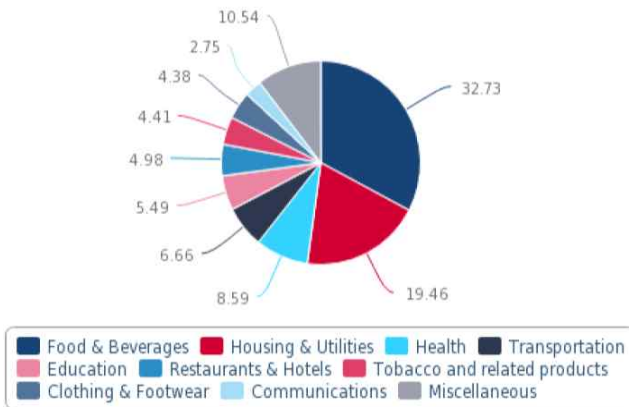
- 2016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세율 13%, 2017년 7월부터 14%)한 데 이어 11월 3일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단행함에 따른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한 결과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10.2%) 대비 급격히 상승(13.3%p)한 23.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환율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2018년 20.9%에서 2019년 13.9%로 대폭 안정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락다운(lockdown)이 전 세계적인 생산활동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국제 수요 위축에 따른 에너지 등 주요 수입품목의 국제가격 하락, 농업 현대화 및 공급 물류체계 개선 등에 기인한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4.5%까지 더욱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의 등장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이집트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금리들 인상(3월 21일)의 여파로 인한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하여, 2022년 이집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22 update), World Bank Global Economics Prospects (January 2022), EIU One-click Report - Egypt (2022-03-01), AfDB North Africa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1), Fitch Solutions - Egypt Country Risk Report (February 2022), IHS Markit Global Economics - Economic - Egypt (2022-03-15).

국내경제

[그림 2] 이집트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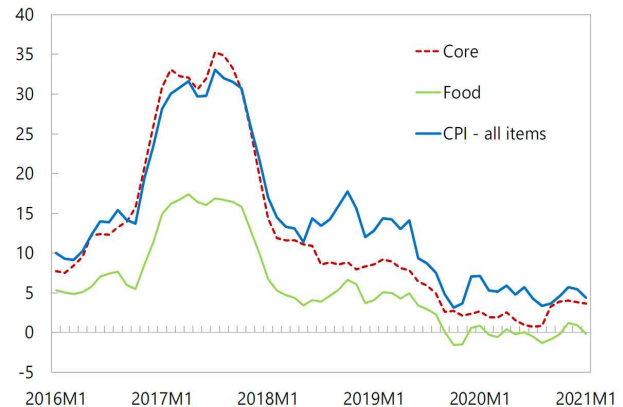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3] 이집트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IMF

- 이집트 중앙통계국(CAPMAS)에 의하면, 이집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2월 5.9%에서 2022년 1월 7.3%로 상승하였고, 2022년 2월에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치 상한에 육박하는 8.8%로 2.5년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²⁾
-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 중 하나로, 전체 밀 수입의 약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밀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집트의 식료품 가격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2022년 들어 밀의 연결선물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증가 기준)은 1월 14일 741.40센트/부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3월 7일 거의 2배인 1,425.25센트/부셸(최근 10년래 최고 수준)로 폭등하였으며, 이후 점차 하락하였으나 3월 25일 1,102.25센트/부셸로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밀 가격 상승에 이집트파운드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2022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정부의 꾸준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 재정수지 적자는 중기적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 부가가치세 도입 및 세율 인상, 연료 보조금 예산 삭감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세원 확충 및 재정지출 삭감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12.5%에서 2020년 7.9%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도 세수 증가와 부채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집트 정부는 2020년 12월 MTRS(중기 수익전략)를 수립해 세무행정과 관세행정 개편, 세제 시스템 현대화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을 4년 내에 2% 포인트 이상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재정수지 적자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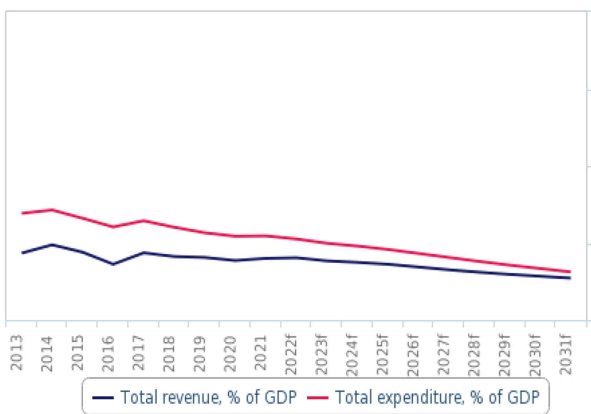
2) IHS Markit > Global Economics > Headline Analysis, "Inflation in Egypt rises to 8.8% in February, close to upper limit of CBE target band" (2022-03-11)

국내경제

- 다만,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 급등으로 인한 밀,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급상승으로 식료품 가격과 연료 가격의 급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민생에 핵심적인 이들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2022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이집트의 연도별 재정수입·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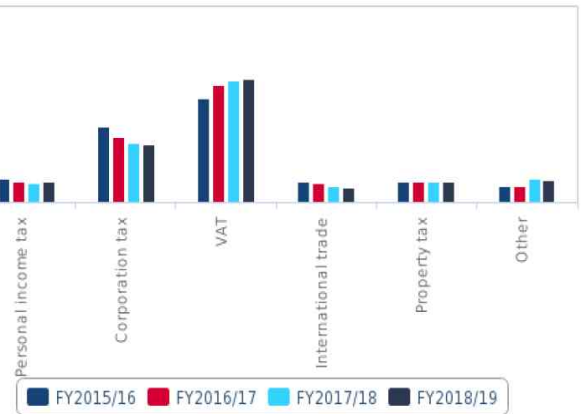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5] 이집트 정부의 품목별 조세 수입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상수지	-7,940	-7,698	-10,222	-14,236	-17,164
경상수지/GDP	-3.4	-3.1	-3.4	-3.9	-4.3
상품수지	-29,065	-29,590	-29,285	-29,234	-42,405
상품수출	23,339	28,046	28,472	25,049	36,109
상품수입	52,404	57,635	57,758	54,283	78,514
외환보유액	32,072	37,642	40,027	33,423	32,050
총외채	84,429	100,186	116,739	136,588	162,738
총외채잔액/GDP	35.7	40.0	38.6	37.6	41.1
D.S.R.	8.8	7.5	9.3	13.9	18.5

자료: IMF, EIU

20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상품수입의 증가로 소폭 상승 추정

- 2021년 상품수출액이 전년보다 110.6억 달러 증가했음에도 상품수입액은 전년보다 242.3억 달러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3.9% → 4.3%)한 것으로 추정되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 아랍에미리트, 유럽의 경기 회복과 비석유 부문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2023년까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수지는 관광 부문의 회복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2년 3월부터 수에즈 운하 운임료가 6% 인상되어 관광 부문의 손실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이집트의 회계연도별 국제수지 주요 항목

단위: GDP 대비 %

	2018/19	2019/20	2020/21 ^e	2021/22 ^f	2022/23 ^f
경상수지	-3.6	-3.1	-3.9	-3.6	-2.6
상품수지	-12.6	-10.1	-9.8	-8.3	-8.4
서비스수지	4.3	2.5	1.3	1.2	2.6
(서비스수출)	8.1	5.9	4.0	4.8	6.3
(관광수입)	4.2	2.7	1.1	1.8	3.2
(수에즈 운하 통행료)	1.9	1.6	1.5	1.5	1.5
본원소득수지	-3.6	-3.1	-2.8	-3.4	-3.2
이전소득수지	8.3	7.6	7.4	7.0	6.4
(해외근로자 송금)	8.2	7.6	7.4	7.0	6.3
자본·금융계정	1.4	-0.1	2.2	4.5	3.6
포트폴리오 순투자	1.4	-2.2	5.1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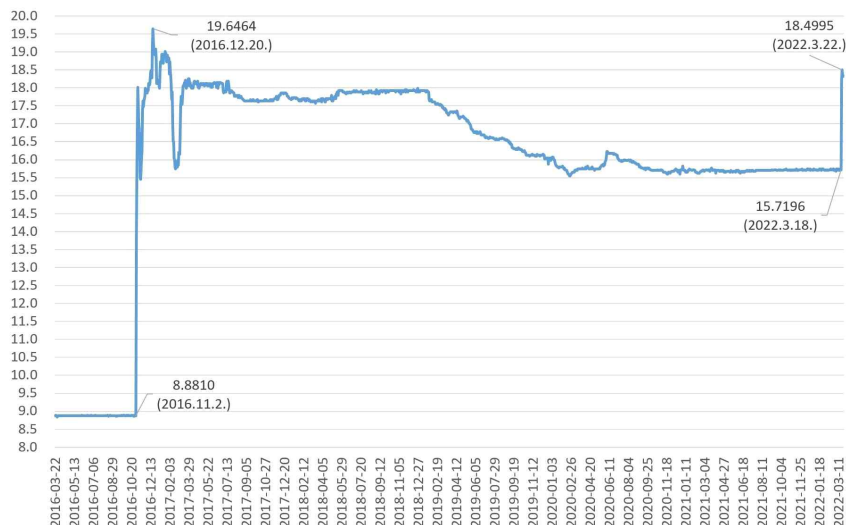
자료: IMF

대외거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 급등, 당분간 고회환을 지속 우려

- 2016년 1~10월 미 달러 대비 9 미만을 유지하던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이하 Bloomberg 증가 기준)은 11월 3일 이집트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제 도입 발표로 전일(8.8810) 대비 무려 55.01% 폭등한 13.7741을 기록한 뒤 동년 12월 20일 19.6464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2020년 3월부터 꾸준히 15.5~16.0 범위 내에서 안정되어 왔음.
- 그러나 2022년 들어 소비자물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밀, 원유 등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의 여파로 더욱 상승하자, 3월 21일 이집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MPC)는 특별회의를 열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목표치(7±2% 포인트 = 5~9%) 달성을 위해 익일물 예금금리(overnight deposit rate), 익일물 대출금리(overnight lending rate), 할인율(discount rate)³⁾를 각각 100bp씩 인상하였음.⁴⁾
 - 익일물 예금금리: 8.25% → 9.25% / 익일물 대출금리: 9.25% → 10.25% / 할인율: 8.75% → 9.75%
- 3월 18일 15.7196을 기록했던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은 이집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당일인 3월 21일 18.2202로 15.91%나 급등한 뒤 3월 22일 18.4995, 3월 25일 18.3344를 기록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고회환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가중으로 국제투자자들이 상대적 위험자산인 신흥국 채권에 속하는 이집트 채권을 우선적으로 대량 매각하며 환율 급등을 부채질하였음.
 - Fitch는 3월 셋째 주 보고서를 통해 이미 작년 9~12월 이집트에서 5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추가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집트 홍해 연안의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관광객 유입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단되어 서비스수지 악화 및 외환 유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

[그림 2] 최근 6년 간 미 달러화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 변동 추이(Bloomberg 기준)



3)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통상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코자 할 때 할인율을 인상함.

4) IHS Markit > Global Economics > Headline Analysis, "Egyptian Central Bank raises policy rate by 100 basis points amid pound depreciation, further rate hikes expected" (2022-03-21)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부채관리 필요

- IMF의 2021년 6월 공적채무 및 외채상환가능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채무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신흥시장 벤치마크 수준인 70%를 상회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 가정(중기적 평균) : 경제성장률 5.5%, 소비자물가상승률 7%
- IMF는 이집트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2018/19회계연도의 84%에서 2020/21회계연도에는 92%로 상승하겠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회복하여 중기적(2025/26년)으로는 GDP의 75%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 지연, 높은 이자율, 재정건전화 정책 지연,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선진국 경기 회복 및 금리 인상 가능성(미국)에 따른 신흥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 등은 주된 채무상환 위험요인이나, 정부의 공적채무 만기 연장과 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 노력, 국채시장에서의 현지 금융기관의 활발한 참여 등은 채무상환 위험을 경감시키는 요인임.
- 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공적채무 구성은 비거주자의 채권 보유비율 29%, 외화표시채권 비율 27%로 고위험 벤치마크(각각 45%, 60%)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 노력(목표: 평균 부채 만기 5년)으로 평균 부채만기가 꾸준히 증가하여 만기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표 3] 이집트의 공적채무 및 외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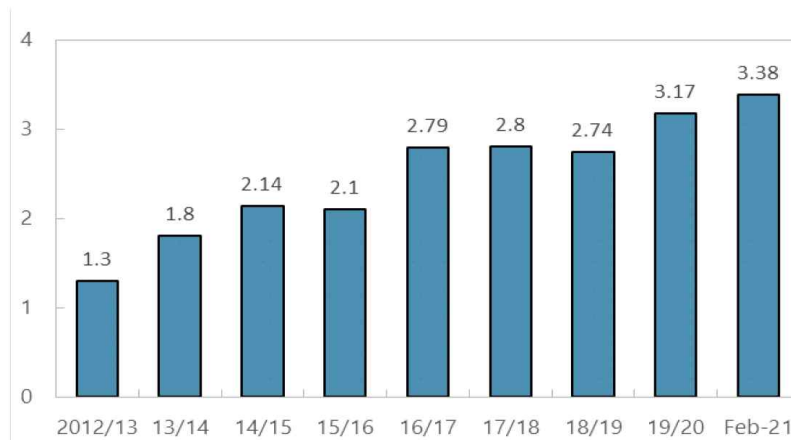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e	2022 ^f	2023 ^f
공적채무	84.2	90.2	92.0	87.8	87.0
외채	36.0	34.1	36.3	32.3	28.2

자료: IMF

[그림 6] 이집트 공적채무의 평균 만기

단위: 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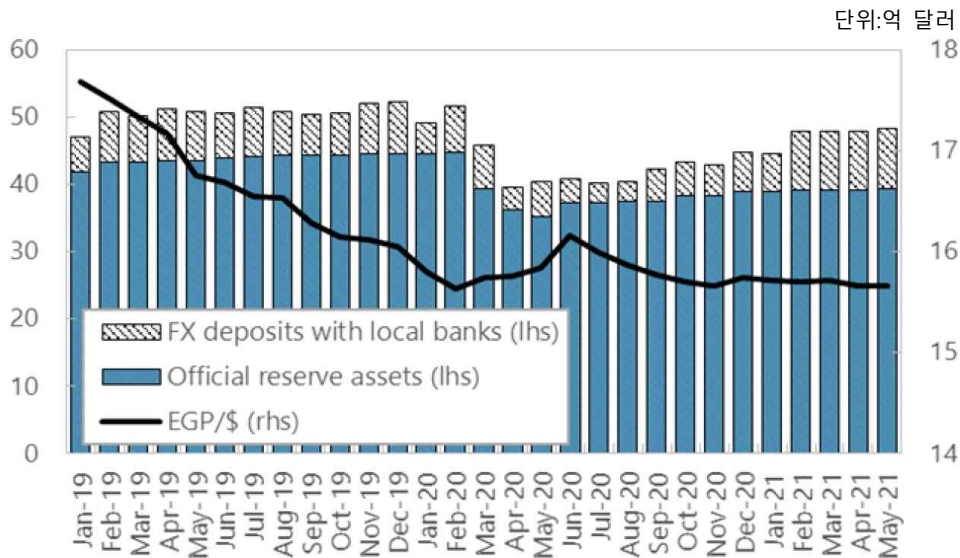
자료: IMF (원자료: 이집트 재무부)

외채상환능력

2021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7개월분에 해당하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

- 2016년의 IMF 차관 도입 및 이후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환보유액이 2016년 말 197억 달러에서 2019년 말 40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 외국인투자 등 주요 외화소득원이 감소한 결과 2021년 말에는 320억 달러로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상품수입액 증가분(242.3억 달러)이 상품수출액 증가분(110.6억 달러)을 초과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이집트의 외화자금 조달 능력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2020년 5월 IMF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에 이어 6월 IMF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SBA) 승인 후 대규모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2020년 5월 50억 달러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9월 MENA 지역 최초로 7.5억 달러의 그린본드(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음.
- 한편,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과 외화 유출 증가에 직면한 이집트 정부는 3월 24일 IMF에 전반적인 경제 프로그램의 가동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규모 감세 조치와 결제불안 경감을 위한 긴급자금 70억 달러의 배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림 7] 이집트의 외환보유액 및 현지은행의 외환보유 규모 월별 추이(2019.1월~2021.5월)



자료: IMF (원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구조적취약성

주요 외화수입원들이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

- 이집트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에너지 자원(석유·가스) 수출과 관광 수입, 수에즈 운하 통관 수입, 해외 취업 노동자 송금, 외국인투자, 원조 등은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관광업은 이집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감염병, 국제 정세 등 정부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이 컸음.
- 이집트의 관광객 유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1,473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1년 시민혁명, 2013년 쿠데타 발생, 2015년 러시아 여객기 격추 테러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임.
- 이에 이집트 정부는 2017년 콥트 교회 테러 발생 당시 국가비상사태를 즉각 선포하였으며, 2018년 대테러 위원회(SCCTE)를 설치하고 IS 지부가 있는 시나이 반도에 대해 대테러 군사작전을 펼치는 등 치안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GDP의 8.8%(320억 달러), 고용의 9.2%(2.4백만 명), 총수출의 26.9%(157억 달러)에서 2020년 기준 GDP의 3.8%(144억 달러), 고용의 6.2%(1.6백만 명), 총수출의 9.3%(4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 2021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및 백신 보급의 효과로 관광업이 일정 수준 회복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개관 등 관광자원의 개발로 증가세를 기대하였으나, 이집트의 연간 관광수입의 33%를 차지했던 러시아 관광객의 내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급감하여 급격한 수익 감소가 예상됨.
-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은 2021년 사상 최고치인 63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21년 3월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운영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 호의 좌초 사고로 운하가 6일 동안 마비되어 선박 통행이 불가능했으며,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도 하였음.
- 에버그린 호 사건은 현재의 수에즈 운하와 인프라 환경에서는 초대형 화물선(20,000TEU 이상)이 지나가기에는 위험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다시 상기시켜주었고, 2021년 5월 이집트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수에즈 운하 남쪽 부분에 대한 확장 계획을 밝혔음.
- 2021년 4월 11일 이집트 은행들은 수에즈 운하 경제개발구역의 인프라 물류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100억 이집트 파운드(약 6.4억 달러) 규모의 장기(10년) 차관을 승인하였음.
- 수에즈운하관리청(SAC)은 수에즈 운하 남부 진입로에서 그레이트 비터 호수까지 약 40km 구간의 수로를 확장하고 2015년 8월에 개통한 72km 길이의 제2수에즈 운하를 그레이트 비터 호수 방향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를 통해 더 많은 선박들이 운하를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길 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곡면이 줄어들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선박 통행의 안정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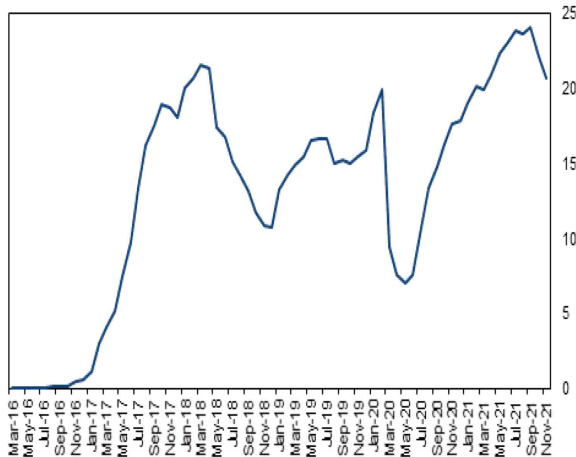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이집트는 신흥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질금리와 안정적인 환율 수준으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투자심리 변동과 미국의 테이퍼링(미 연준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축소)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음.
- 이집트 경제는 2016년부터 비거주자가 보유한 재무성 어음이 약 25%까지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유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2022년 정책금리 인상(75bp)과 JP Morgan 채권지수예의 재편입 등에 힘입어 10억 달러 이상의 포트폴리오 유입이 예상됨. 또한, 첫 수쿠크 채권 발행, 일본 엔화 표시 채권 5억 달러 발행, 그린본드 발행 등 채무상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유입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 시사 발언으로 외국인 보유 국고채 규모가 2021년 9월 240억 달러에서 11월 20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중 미국이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비적 차원의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8] 이집트의 비거주자 보유 재무성 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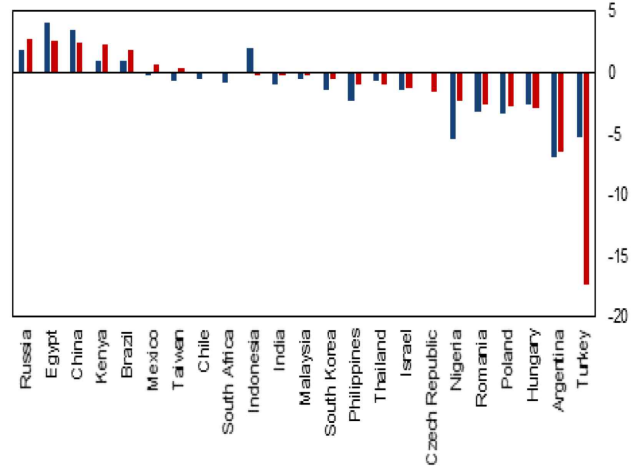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CBE, Fitch Solutions

[그림 9] 2022년 신흥국가들의 실질 정책 금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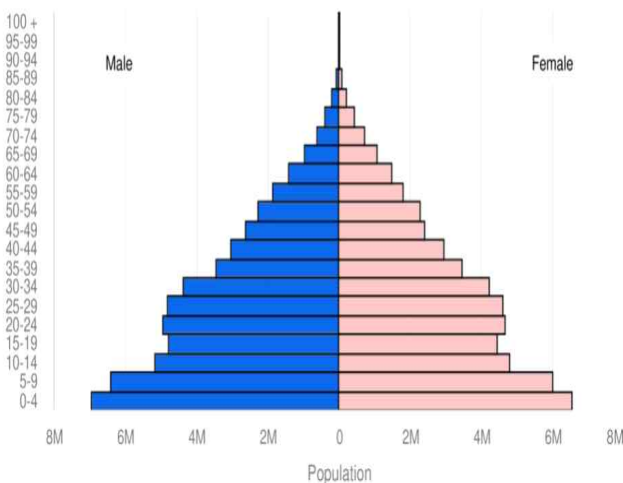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성장잠재력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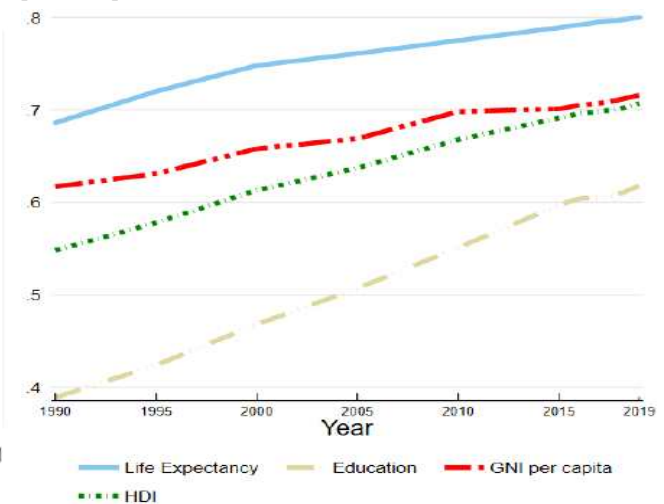
-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집트의 중위연령은 24.1세(남성 23.8세, 여성 24.5세, 2020년 추정, CIA)로 노동 가능인구가 풍부할 뿐 아니라 숙련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57.2%(UNDP 기준)에 해당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UNDP에 따르면 이집트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률은 71.2%이며, 2차 교육과정 취학률은 88%, 3차 교육과정 취학률은 35%임.
- 또한, 이집트의 2019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⁵⁾는 0.707(116위/189개국)을 기록,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아랍 국가들과 비교 시에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1990~2019년 동안 HDI는 0.548에서 0.707로 꾸준히 상승(29%)하였음. 세부적으로는 동 기간 중 기대 수명은 7.4년(64.6년→72.0년), 평균 교육기간은 3.9년(3.5년→7.4년), 기대 교육기간은 3.5년(9.8년→13.3년) 증가했으며, 특히 1인당 GNI의 상승폭(93.4%, 5,930달러→11,466달러)이 두드러졌음.
- * 중동 국가 평균(UNDP) : HDI 0.705, 기대수명 72.1세, 평균 교육기간 8.4년, 기대 교육기간 14.0년
- 2019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인적자본 중 現노동인구의 교육·기술 부문)에 따르면 이집트의 평균 교육연수는 141개국 중 97위, 직원교육 수준은 75위,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은 129위, 대졸자의 기술수준은 133위,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는 44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은 87위로 직업훈련 확대와 고학력자의 기술 관련 개발이 특히 긴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0] 2021년 이집트 연령대별 인구 구성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그림 11] 1990~2019년 이집트 HDI 구성요소별 지수 추이



자료: UNDP

5)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①기대수명(평균수명), ②교육 수준(취학연령의 기대 교육기간,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기간), ③소득수준(1인당 GNI, PPP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함.

성장잠재력

에너지 부문의 높은 개발잠재력

- 이집트는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2020년 기준 상품수출의 30.1%, EIU)으로, 2019년 기준 석유 생산량은 일평균 68.6만 배럴(세계 점유율 0.7%, 아프리카 5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649억 m³(세계 점유율 1.6%, 아프리카 2위)를 기록하였음(자료: BP).
- 한편, 자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국내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발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2월 동지중해 최대 규모의 Zohr 가스전과 2018년 Atoll 가스전 등이 순차적으로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2018년 9월 천연가스의 자급자족을 선언하였음(단, 이스라엘과의 기존 공급 계약에 따라 가스 일부는 여전히 수입 중).
- 이집트 정부는 잉여 에너지 수출을 통해 역내 에너지 허브가 되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지중해 연안의 다미에타(Damietta)에 위치한 LNG 플랜트를 가동 중단 8년 만인 2021년 2월 재가동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대되어 역외 수출까지 확대됨.
-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Tarek El Molar 석유장관은 다미에타 LNG 플랜트가 연간 45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집트는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이집트 석유부에 따르면 2021년 이집트 국내에서 진행 중인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80억 달러, 완료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6건, 총 42억 달러 규모이며, 전년 대비 가스 생산량은 17.2%, 석유 생산량은 8.4% 증가하였음.
- 한편, 이집트는 국토의 96%가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적합하며, 국토의 90%가 풍력발전에 적합하여 풍력발전 개발의 잠재력 또한 높음. 이집트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전력재생에너지부는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2년까지 20%, 2035년까지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 시도

- 이집트 기획재정부는 2022년의 공공투자에서 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예년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공공투자 사업을 100%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산업 폐기물 처리, 대기질 및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그린 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 2020년 9월 7.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마련된 자금을 친환경 운송, 수자원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녹색 인센티브 자금'을 조성하였음. 한편,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대기오염 개선 지원에 2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음.
- 이집트 국부펀드(SFE, Sovereign Fund of Egypt), 노르웨이 Scatec, 오라스콤 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홍해 연안 도시 아인소크나에 이집트 최초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SFE는 2~3건의 그린수소 생산 사업에 추가 참여를 계획 중임.
- 이집트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며, 이집트 공장의 88%가 산업폐수를 나일강에 방출하여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 이집트 국부펀드 SFE는 향후 5년 간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집트 담수화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정책성과

IMF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등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노력

- 이집트 정부는 2016~19년 간 진행되었던 재정건전성 강화(부가가치세 도입 및 세율 인상,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변동환율제도 채택 등 IMF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프로그램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이후 IMF는 이집트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신속금융제도(RFI) 및 6월 대기성차관(SBA)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전액을 일시 집행하는 RFI와 달리 SBA는 12개월 프로그램으로 현재 집행 일정에 맞춰 분할 집행 중임.
-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한 긴급 위기대응 정책(보건·사회보장 프로그램, 취약계층·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및 국제수지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이집트에 27.72억 달러 규모의 RFI를 제공하였음.
- 또한, IMF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2020년 6월 이집트에 52억 달러 규모의 SBA를 지원한 바 있음. IMF는 SBA를 통해 2016년 이후 일련의 IMF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개혁 성과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회복지 지원과 포용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기적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코자 함.
- 한편, 이집트 정부는 동 차관을 통해 공적채무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보건 지출 재원을 확보하고, 변동환율제도 유지 하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투명성·거버넌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IMF는 2021년 6월 이집트의 SBA 지원에 대한 경제 실사 최종결과 발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량목표 성과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공공부채 관리, 확고한 거버넌스 확립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표 4] 2021년 3월 말 기준 이집트 앞 IMF 차관 지원 현황^{주)}

단위: 천 SDR

자금종류	약정일	집행기한	약정액	집행액	잔액
대기성차관(SBA)	2020.06.26	2021.06.25	3,763,640	3,763,640	3,763,640
신속금융제도(RFI)	2020.05.11	2020.05.13	2,037,100	2,037,100	2,037,100
확대신용공여(EFF)	2016.11.11	2019.07.29	8,596,570	8,596,570	8,268,228
합계	-	-	14,397,310	14,397,310	14,068,968

자료: IMF, <https://www.imf.org/external/np/fin/tad/extarr2.aspx?memberkey1=275&date1Key=2021-12-31>

주: 현재 잔액이 있는 지원 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진행

- 이집트 정부는 2015년 3월 경제개발회의에서 수도인 카이로의 인구 과밀 완화를 위해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부지 규모 700km²의 신행정수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 이전 공사와 동시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공항, 호텔, 상업지구, 주거지구, 모스크 등의 공사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2020년 중순 경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엘시시 대통령은 이전 계획을 연기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약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임.

정치안정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세 안정화

- 2011년 '아랍의 봄'(민주화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2012년 6월 선거에서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가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이슬람주의 단체 무슬림형제단과 그 반대파인 세속주의 세력 간의 정치 갈등으로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음.
- 2013년 6월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7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압델파타 엘시시가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였음. 이후 엘시시는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집트 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였음.
- 엘시시 대통령은 201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2024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2회 연임제한을 3회로 완화하는 개헌을 통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음.
- 보조금 삭감, 세금 인상, 권위주의적 태도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으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엘시시 대통령은 75세가 되는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20년 상원 및 하원 선거를 통해 엘시시 행정부의 지지기반 확보

- 2020년 7월 상원 선거에 이어 같은 해 12월 하원 선거에서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의석 다수를 확보함에 따라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 강화되어 기존 정책은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EIU에 따르면 후보 선출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친정부 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가 선정되었음.
- 국가미래당은 2013년 반무슬림형제단 청년운동 주도자를 중심으로 2014년 창설된 친정부 성향의 정당이며, 공화국민당과 국가수호당도 친정부 성향이 매우 강한 정당임.

[표 5] 2020년 이집트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구분	정당별 의석 수
상원	국가미래당(Future of a Nation Party, FNP) 149석, 무소속 88석, 기타 25석, 공화국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 RPP) 17석, 국가수호당(Homeland Defenders Party, HDP) 11석, 와프당(New Wafd Party, NWP) 10석 ※ 상원은 개인후보제 100석, 폐쇄형 정당명부제 100석, 대통령 지명 100석 (총 300석)
하원	국가미래당(FNP) 316석, 무소속 124석, 기타 57석, 공화국민당(RPP) 50석, 와프당(NWP) 26석, 국가수호당(HDP) 23석 ※ 하원은 개인후보제 284석, 폐쇄형 정당명부제 284석, 대통령 지명 28석 (총 596석)

자료: IHS Markit (원자료: CIRCA People in Power)

사회안정

사회적 불안 확산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통제

- IMF의 EF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고강도 경제개혁(증세, 보조금 감축,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 높은 빈곤율 및 청년실업률 등으로 국민들의 내재적 불만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확대는 정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다만, 반정부 세력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위나 집회를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정부 세력의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7년부터 계속 연장해 오던 국가비상사태, 4년여 만에 종료 선언

- 2017년 4월 카이로 콥트 교회에서 일어난 IS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최소 44명의 콥트 기독교인 사망)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최초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7월에 연장됨.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이집트 군-경은 대통령령(국가비상사태)에 따라 국가 전역의 안보 유지와 테러 위협 대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극단주의 테러 활동 뿐 아니라 집회·시위도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시위대에 대한 체포·구금이 가능해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 또한, 이집트 군-경은 2018년부터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특히 IS 무장단체 대상)을 수행 중으로, 2018~20년 7월까지 대테러전으로 인해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범 800여명, 이집트 군 70여명이 사망한 바 있음. 2017년 이후 테러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북부의 주요 해안도로 인근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 2021년 10월 25일 엘시시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충성스러운 사람들 덕에 이집트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오아시스가 되었으며, 이에 국가비상사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재하였음.
- 이러한 결정에는 시나이 반도 북부를 비롯한 이집트 전 지역에 걸친 국내 정세의 안정,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역할 및 비중 강화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이집트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은 국가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투자 증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으나, 인권운동가들은 국가비상사태 종료에도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2년 1월 보고서에서 이집트가 물 부족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낮은 고용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에 4등급(Highly Negative)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부여하였으며, ESG 요소가 이집트 정부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나일 강에 대한 높은 수자원 의존도 및 인구과밀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고려하여 4등급을 부여하였음. 나일 강의 연간 강수량 감소로 깨끗한 수자원 고갈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집트 정부는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사탕수수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작물의 재배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이집트 인구의 10~25%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평가됨.
- **(사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젊은 노동인구를 노동시장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낮은 고용률(청년실업률 25% 초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성불평등 수준은 사회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4등급을 부여함.
- **(지배구조)** 저조한 시민 참여와 낮은 책임성,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견제 기능 부족 등을 반영하여 4등급을 부여하였음. 한편, 최근의 경제·재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공적채무 비율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임.

국제관계

에티오피아의 일방적인 청나일 유역 수력발전소 건설로 나일 강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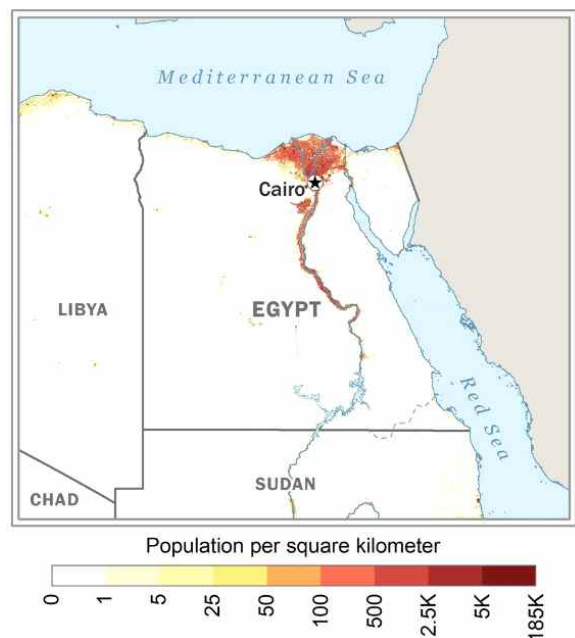
- 나일 강 유역 국가들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전력난 해소, 경제개발 및 전력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나일 강 분지 상류에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 댐(6,000MW급 발전용량)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건설 중이며, 나일 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수원 공급 문제)·수단(댐 운영 차질)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2020년 7월 1차 담수(49억 m³)를 감행하였음.
- 이집트 인구의 약 95%가 나일 강 및 델타로부터 20km 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농업이 GDP의 12.1%(EIU)를 차지하는 등 나일 강은 이집트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의 필수자원임. 이집트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댐 담수가 자국민의 수자원 공급에 심각한 차질(특히 가뭄 시)을 초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에티오피아·수단과 담수(시기, 담수량) 및 운영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정의 체결을 위해 3자 회담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법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3국의 이견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협상 의지 부족과 비타협적 태도가 협상의 진척에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2월 미국이 중재하는 3자 회담 협상 불참 후 2021년 4월 AU 의장(DR콩고 대통령) 주관의 킨샤사 협상(4.4~4.5)에서 이집트·수단이 제시한 방안을 전면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집트·수단과의 협정 체결 없이 2차 담수(135억 m³)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국제사회 앞 공한 발송(2021년 4월, UN 사무총장, 안보리·총회 의장), 각국 정상 간 통화(영국, 프랑스 등), 연대 촉구(아랍국가), 순방(아프리카 6개국 예정, 케냐·코모로·남아공·DR콩고·세네갈·튀니지) 등을 통해 그랜드 르네상스 댐을 둘러싼 3국 간 갈등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여전히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그랜드 르네상스 댐 위치



자료: EIU

[그림 13] 이집트 인구 거주 분포도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국제관계

미국, EU,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우호관계 유지

- 이집트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 EU와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와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업금융(대출)과 FDI를 통해 인프라 건설(고속철, 도로 등), 플랜트, 통신, 운송 등 이집트의 주요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공급원이 되었으나, 과도한 중국 자금 차입으로 인한 대 중국 의존도 심화와 중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따른 자국민의 일자리 감소로 일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
- 일례로 중국이 대규모 투자 및 차관을 제공한 신행정수도 중앙 상업지구 2단계 개발사업(35억 달러 규모)과 일대일로 프로젝트이기도 한 수에즈 정유·화학 플랜트 사업(61억 달러 규모)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터키와의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 이집트의 인접국인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암마르 카다피의 독재 정권이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UAE는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트라가 이끄는 반군 세력인 리비아 국민군(세속주의 표방)을 지원하는 반면, 터키는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여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UAE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
- 한편, 2020년 7월 이후 터키의 그리스 크레타 섬 부근과 키프로스 부근 등 동지중해 상에서의 천연가스·지질 탐사로 인해 촉발된 해당 지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자원 개발 문제로 이집트·그리스·키프로스와 터키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음.
- 이집트는 터키의 탐사가 이집트 EEZ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2013년 키프로스와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여 동지중해 EEZ 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양국의 이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나, 터키는 해당 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이후 터키는 2019년 11월 리비아와 해양경계획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집트와 그리스는 해당 협약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 협약이라 주장하며 2020년 8월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여 동지중해의 해상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동지중해에서의 에너지 협력 증진과 터키에 대한 견제를 위해 2019년 1월 동지중해 가스 포럼(Eastern Mediterranean Gas Forum)*을 출범시켰으며, 2021년 3월 1일 설립 협정이 발효되어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되었음(본부는 카이로에 소재).
- * 창립 회원국은 6개국(이집트, 키프로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이며 2021년 3월 프랑스가 추가 가입함(미국은 옵서버 국가).
- 터키는 2021년 3월 3일 이집트와 새로운 해양경계획정협정 체결 협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 의사를 비쳤으며, 5월 5~6일 이집트 및 터키 정부는 양국 간 관계 정상화 논의를 위한 정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관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2020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은 미미한 수준

- 2020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이집트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총 215.9억 달러(단기 14.3억 달러, 중장기 201.6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0.38%(연체금 0.8억 달러)의 미미한 수준으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으로 파악됨.

파리클럽과 2차례에 걸친 채무재조정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과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상환 완료)와 212억 달러(현재 상환 중) 규모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채무재조정은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2.01)	5등급 (2021.01)
Moody's	B2 (2019.04)	B3 (2018.08)
Fitch	B+ (2019.03)	B (2018.01)

2021년 팬데믹에도 OECD와 Fitch, Moody's 모두 기존 평가등급 유지

- 이집트에 대한 OECD 평가등급은 현재 5등급으로, 2019년 1월 관광업 회복,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개선,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 등을 감안하여 6등급에서 5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Fitch와 Moody's는 2019년 상반기 이집트의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1단계씩 상향 조정(Fitch: 3월, B → B+ / Moody's: 4월, B3 → B2)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외환보유액 수준, 금융시장 접근성, IMF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 실적, 2022년 이후 국제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재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이집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도 민간소비 회복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2020년에 이어 3.3%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5%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꾸준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수입의 증가로 소폭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외국인투자 등 주요 외화소득원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였으나, 공적채무 만기 연장, 중장기 채권 발행 확대 노력, 국채시장에서의 현지 금융기관의 활발한 참여 등은 채무상환 위험을 경감시키는 요인임.
- 2014년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세가 안정되었으나, 고강도 경제개혁(증세, 보조금 감축,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높은 빈곤율 및 청년실업률 등은 사회불안 요인임. 다만, 반정부 시위의 세력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 유럽,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나 에티오피아와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 건설에 따른 담수 문제로, 터키와는 리비아 내전 및 동지중해 EEZ 문제를 놓고 대립 관계에 있음.